

해수온천·해안 일주도로 목포 관광자원 개발 착수

유달산·외달도 등 5곳 온천 탐사 용역

목포시가 온천개발과 함께 해안 일주도로 개설을 추진키로 하는 등 수려한 해양경관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나선다.

시는 이들 사업이 본격화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확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내년 상반기에 유달산~해양대 구역을 비롯해 외달도, 달도, 고하도, 온금동 5개 지역에 대해 모두 6천 100만 원을 들여 '심부 지열자원'(일명 온천) 탐사용역을 실시한다. 온천

탐사와 개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목포는 체류형 관광단지를 보유한 해양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이와 함께 내화촌 방조제에서 북항~내항~삼학도~갯바위~북항에 이르는 총 길이 22km의 해안일주도로 건설사업을 오는 2012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아직까지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삼학도~갯바위 간 해안선, 내화촌 방조제에서 북항 일대 등 총 연장 12km에 대해 단계적으로 도로

개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 2월부터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국비 500억 원과 시비 400억 원 등 총 9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최명호 도시과장은 "목포는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였으나 온천과 해안 일주도로가 개발되면 본격적인 체류형 관광지로 변모할 수 있게 된다"며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대규모 온천단지가 개발되고, 해안일주도로까지 마무리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노인돌보미 바꾸쳐 진도군, 전남 최우수

진도군이 노인돌보미 바꾸쳐 전남 최우수군으로 선정됐다.

지난 5월 지역자활센터(센터장 조재만)와 까리따스 사회복지센터(시설장 나해정)를 '노인 돌보미 바꾸쳐 서비스' 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활발한 서비스 활동을 펼쳐 최근 전남도로 부터 최우수군 지정을 받았다.

노인 돌보미 바꾸쳐 서비스는 혼자 사는 가사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65세 이상 거동 불편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가정봉사원을 파견해 가사와 목욕, 청소, 외출 등을 돕는 사업이다. 진도군은 당초 48명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으나 11월말 현재 목표의 262%인 126명에게 바꾸쳐 서비스를 제공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불우이웃에 사랑의 연탄 배달

목포세무서 박홍순 서장과 직원 50여명은 최근 목포시 온금동 유달산 인근 고지대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불우이웃에게 연탄과 쌀을 배달하는 이웃사랑 운동을 벌였다.

목포세무서 박홍순 서장과 직원 50여명은 최근 목포시 온금동 유달산 인근 고지대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불우이웃에게 연탄과 쌀을 배달하는 이웃사랑 운동을 벌였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신안 압해면에 게르마늄 젓갈 타운

송공리 일대 100억 들여 내년 6월 착공

'게르마늄 젓갈 타운'이 신안군 압해면에 건립된다.

신안군은 압해면 송공리에 100억 원을 들여 연 면적 2천여㎡ 규모의 게

르마늄 젓갈 타운을 건립한다.

게르마늄 젓갈 타운은 내년 6월에 공사에 들어가 2009년 10월 완공된다.

이 젓갈 타운에는 위관장과 젓갈 가공공장, 전시실 등이 들어서며 민자 유치로 젓갈 판매 코너와 젓갈 거리도 조성된다.

신안군은 젓갈 타운이 준공되면 연간 70만여명의 관광객이 몰려 신안 젓갈의 명성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신안 읍·면 중학교 컴퓨터 장비 교체

신안군이 읍·면 중학교 컴퓨터실 장비를 신기종으로 교체한다.

군은 올해 시범적으로 비금중학교를 선정해 컴퓨터 20대와 전동 스크린 1대, 전기시설 및 네트워크 장비를 수리해 전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군은 내년에 중학교 2개소를 선정해 행정 전산장비를 교체하거나 수리하고, 나머지 13개 읍면 중학교에도 연차적으로 최신형 PC를 보급할 계획이다.

신안군은 앞으로 컴퓨터 실습실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방학기간 중에는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서남권 산재 근로자 늘어

8월말 현재 822명에 21명 사망

전남 서남권 지역의 산업재해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전남 서남권 지역의 산업재해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노동부 목포지청(지청장 유병환)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 말 현재 서남권 지역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822명으로 지난해보다 45명이 늘어났으며 사망자도 5명이 증가한 21명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전체 재해 발생자 중 제조업과 건설업이 전체의 73%를 차

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부 목포지청은 재해 예방을 위해 오는 21일까지 동절기 위험요인이 있는 건설현장에 대한 일제점검에 착수했다. 목포지청은 ▲올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 ▲재해율이 높은 업체가 시공하는 현장 ▲동과, 화재 등 동절기 위험요인이 있는 건설현장 등 20여곳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청와대 다녀 왔어요"

신안 증도 주민 30명

신안군 증도면 공무원과 주민 30여명이 지난 7일 청와대를 방문했다.

증도면 주민들은 대통령 부인 권양숙여사 초청으로 청와대를 방문한 데 이어 국립중앙박물관과 안좌면 출신 서양화가 김환기 미술관, 남산 전통한옥마을, 예술의 전당,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도 둘러 봤다.

한편 신안군 증도면은 지난달 28일 대통령 부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증도 작은 도서관 개관식을 가졌다.

신안군은 이 도서관을 주민들이 함께하는 마을속의 문화공간으로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목포 자연사박물관, 자연사 연구기관과 협력망 구축

완도 수목원·홍도 철새연구센터와 MOU

목포 자연사박물관(관장 김앤다)이 효율적인 자연사분야 연구와 폭넓은 교류를 위해 연구기관과 협력을 강화한다.

목포 자연사박물관은 오는 13일 완도 수목원 및 홍도 철새연구센터, 고성 공룡박물관 등 3개 기관과 업무협약 MOU를 체결한다.

이번 협약체결로 학술 연구 강화와 다양한 전시물 확보가 가능케 됐다.

또 관련 시설 및 장비 공동 활용과 상호 홍보 효과로 관람객 증가도 기대된다.

목포 자연사박물관은 지난 2006년부터 영암 삼호곤충농장에서 다양한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국립중앙과학관등 16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목포 자연사박물관(관장 김앤다)이 효율적인 자연사분야 연구와 폭넓은 교류를 위해 연구기관과 협력을 강화한다.

목포 자연사박물관은 오는 13일 완도 수목원 및 홍도 철새연구센터, 고성 공룡박물관 등 3개 기관과 업무협약 MOU를 체결한다.

이번 협약체결로 학술 연구 강화와 다양한 전시물 확보가 가능케 됐다.

또 관련 시설 및 장비 공동 활용과 상호 홍보 효과로 관람객 증가도 기대된다.

목포 자연사박물관은 지난 2006년부터 영암 삼호곤충농장에서 다양한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국립중앙과학관등 16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매경골프 6주년 찾감사 행사

매경골프 (H0062-269-9336)

- 1. 매경골프 회원 100명 선착순 100% 할인
- 2. 매경골프 회원 100명 선착순 100% 할인
- 3. 매경골프 회원 100명 선착순 100% 할인
- 4. 매경골프 회원 100명 선착순 100% 할인

청정호수 전원주택단지 분양

부동산 자택의 푸른호수 화순 사당리 원마을 Village

자연 IN

분양사무소: (H00)653-9870

미식 미도 확장개업

그 동안 심원해주시민 고객님께 심리 감사드립니다. 개업15주년을 맞이하여 미식 미도가 새로운 분위기, 골목길은 서늘하고 3층 확장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친절함은 마음으로 명심할 터에 고시겠습니다.

미도 미도 서도 잊지 못할 맛

승남모임, 가족·집대모임은 '일명'미도 미도에서

- 단체 20명, 50명 가능
- 동시주차 50대 가능

분양사무소: (H00)653-9870 T. 062-234-0001, 228-0106